

조경수의 다양한 활용

07 도심 속의 그늘나무

코엑스 선관 앞 가로공원

초입의 두 그루 단풍나무가 인사하듯 반긴다



조수연

(이자인 환경생태기술연구소 이사)

E-mail : ezign29@naver.com

www.ezign.kr



산책로변 화단은 관목과 지피식물로 채워졌다.



빌딩 숲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공기를 쉼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을 바로 나무와 그들이 만들어준다.

자연을 더욱 그리게 되는 계절, 여름이 어김없이 돌아와 우리 앞에 섰다. 마음은 시원한 곳을 찾아 산으로 바다로 향하지만, 내킨다고 훌쩍 떠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거나 한가하지 않은게 복잡한 우리 도시민들의 삶이다.

그렇기에 도심에서 접하는 나무는 자연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소중하고,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나무가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산과 들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을 위해서는 도시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쩌면 햇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요즘이기에.

이번 달에는 지하에 물(mail)을 형성하고 나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명소로 더욱 부각된 코엑스 부지에 있는 가로공원을 찾아보았다. 지하철 삼성역과 연결된 코엑스몰(COEX Mall)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무장하고 극장, 캐릭터샵, 의류샵 등 다양한 상가들을 유치하면서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다. 덕분에 인접한 녹지나 광장은 늘 이런저런 행사로, 또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다.

그렇다면 좀 더 한적한 쉼터는 없을까. 외외로 코엑스 신관 앞의 이 작은 가로공간은 다른 곳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생각된다. 신관 건물과 조금 떨어져 있는 탓도 있고, 유동인구도 다른 곳에 비하면 적은 편인 이곳은 봉은사 입구 맞은편에 있다. 차도에 접해 있으므로 소음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더라도,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쉼터로, 버스를 기다리거나 사람을 만나기로 했을 때 잠시 기다릴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도심 속 그늘

빌딩 숲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또 그 핵심에 있는 여러 직장인들에게 쉼 곳은 늘 필요하다. 또한 실내의 갑갑한 공기만이 아니라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쉼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 거기에는 조금은 위요되고 격리된 공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간을 바로 나무와 그들이 만들어준다.

그늘에 대한 욕구는 여름이 되면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어서 햇빛이 강렬할수록 가로수의 소중함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게다가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 을씨년스럽던 활엽수들도 지금은 최상의 상태로 자신의 자태를 뽐내고 있지 않은가.

가로수의 대표적인 플라타너스의 넓고 짙은 그늘도 좋고, 은행나무의 좁지만 기다란 그늘도 맘에 든다. 느티나무의 치밀한 잎이 만들어주는 그럴듯한 그늘도, 단풍나무가 드리우는 소박한 그늘도 모두 보행자나 방문객에게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 되어준다.

이곳 코엑스의 거리를 걷다 만나게 되는 이 가로공원에도 그늘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다. 가로공원이다 보니 여러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특히 가장 두드러진 진입부라 할 수 있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COEX INTERCONTINENTAL) 호텔 옆 모퉁이의 대형 느티나무는 이 가로공원을 강하게 인식시켜주는 요소가 된다. 양쪽으로 건널목이 있는 인도의 모퉁이 부분에 서있는 대형 느티나무. 가로공원의 시점부이기도 한 이곳에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잠시 쉬어가도록 만드는 석재 볼라드, 그리고 소중한 그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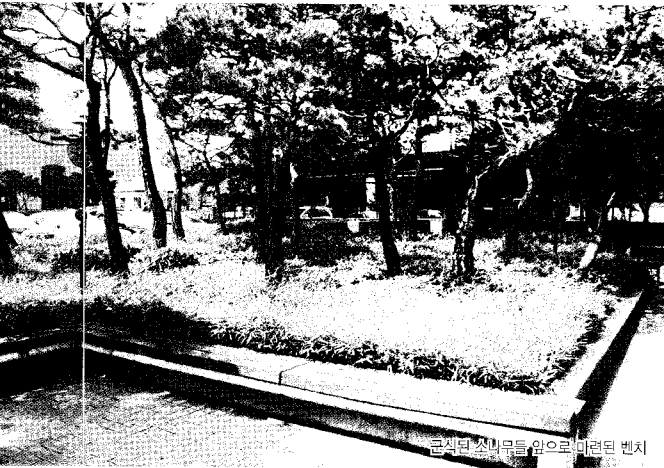


가로공원의 시작을 알리며 너른 그늘을 드리우는 느티나무

쉼터와 벤치

가로에 인접하여 작은 녹지와 쉼터가 있다는 것은 보행자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목적지를 향해 걷든, 산책을 하든 사람에게 휴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벤치는 그야말로 녹지와 맞닿아 있다. 가로공원이다 보니 넓은 폭의 광장 같은 공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길게 이어진 산책로 공간을 따라 벤치가 놓여진다. 벤치는 녹지를 벽으로 삼아 놓이고, 보행자들은 앉음벽인지 녹지의 경계부인지 모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사실 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슨 상관인가). 코엑스 신관이나 아셈빌딩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공간이다.

녹지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고, 하부에는 관목과 지피류가 심겨 있는데, 소나무가 군식을 이룬 곳도 있고, 느티나무와 단풍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기도 하다.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교목의 군락들은 주변의 도로와 대형 건물로부터 방문객을 잠시 보듬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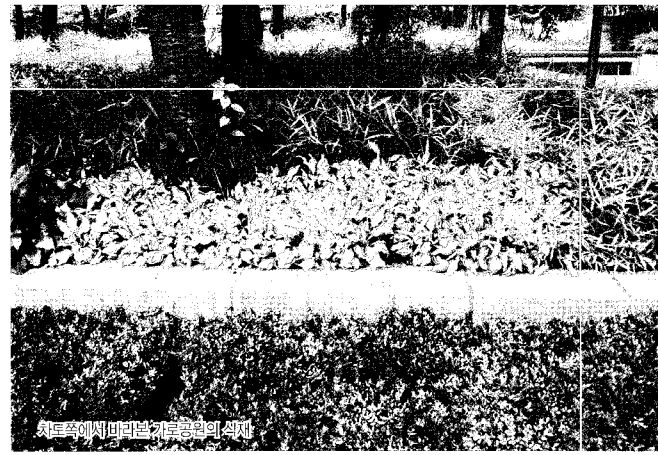
군식된 소나무들 옆으로 마련된 벤치



녹지와 벤치 산책로가 맞닿은 가로공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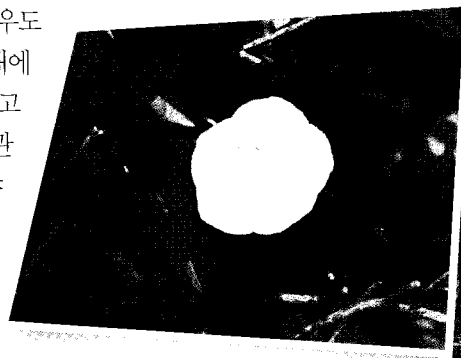
교목 하부의 지피식재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새로 조성된 여러 공원들이나 녹지에서는 교목 하부의 지피나 관목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곳 가로공원을 포함한 코엑스 인근의 교목 하부는 관리상태도 좋고 건강한 관목과 아름다운 지피식물들이 많아, 시각적으로도 좋고 쾌적한 느낌을 전해준다.



차도에서 바라본 가로공원의 식재

관리자에 따르면, 그늘지역의 식물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죽는 경우도 있지만, 관목 또는 지피의 뿌리가 교목과 경쟁이 되어 고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즉 특정 교목의 뿌리 자람 형태에 어울리는 관목과 지피를 찾아 심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한다. 교목과 관목, 지피의 눈에 보이는 조화를 찾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조경은 쉬운 일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교목과 관목의 뿌리 자람 형태에 어울리는 지피를 찾아 심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한다.

가능하다면 특정 교목과 어울릴 수 있고, 그 하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관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내서 그런 수종들을 재배하고 설계자들에게도 알려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산책로를 걷는 시민에게 주는 그늘의 일함수들

더 많은 그늘이 필요하다

그늘을 주는 나무들도 많고, 도심 곳곳에는 알지 못했던 쉼터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가로공간에는 여전히 그늘과 쉬어갈 곳이 부족하다. 최근에는 보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등장하여 보행자와 경쟁하는 구도까지 보이고 있지만, 곳곳에 있어야 할 녹지나 너른 그늘마당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다.

우리 도시에는 더 많은 그늘이 필요하다. 나무를 이용해 만들어진 그늘은 인공적인 시설에 의한 그늘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우리에게 준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의 소리가 청량감을 주고, 공해가 많은 곳에서는 공해를 저감시키고, 비가 오면 잠시 비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무다. 도심 곳곳에 더 많은 그늘나무가 심겨지는 그날이 오길. 🌳

